

사랑터

제1685호

부활 제 5주일

2020년 5월10일

주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북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화: 345-7086(사제관)/343-2446(수녀원)/343-2018(사무실)/345-2357(FAX)

미사안내(월) 6:30, (화) 19:30, (수) 10:00, (목) 19:30, (금) 10:00, (토) 18:30특전 (일)6:30,10:30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5월10일 (부활 제 5주일)	5월17일 (부활 제 6주일)			
특전 미사	해 설	최옥영 M.막달레나	이가희 소피아		
	1독서	이가희 소피아	배점미 안나		
	2독서	배운주 안젤라	최옥영 M.막달레나		
새벽 미사	해 설	황숙자 베로니카	이상희 로사		
	1독서	김관곤 오네시모	박승규 엘리시오		
	2독서	황복자 마리아	최옥영 M.막달레나		
교중 미사	해 설	김재실 에바리스또	김광순 카타리나		
	1독서	한상배 바오로	최문택 시메온		
	2독서	권미라 리오바	이두남 아가다		
화 답 송	 <p>주님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 자애를 베푸소서</p>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5월11일(월)	5월12일(화)	5월13일(수)	5월14일(목)	5월15일(금)
해설	손 요안나	김재실 에바리스또	이상희 로사	안정준 바오로	변은숙 M.막달레나
독서	김진화 레지나	사도들의 모후	천상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순결하신 모후

5월10일 (부활 제 5주일)	미사안내	사회복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사도들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5/4(월)-5/10(일)	6구역 주호, 윌립반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박안홍(시몬) 후 :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5월17일 (부활 제 6주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사도들의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5/11(월)-5/17(일)	6구역 쉐넴, 휴먼빌, 휴먼시아6단지
	차량봉사(좌곤리)	강연옥(헬레나)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주양원(요셉) 후 :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 제대회 5/17일 교중미사 후(하랑)
- 대산공소 미사
 - 일시: 5월17일(주일) 14시
 - 동행: 천상의 모후 Pr.(13:30분 출발)
- 예비자 교리 6/7일(9시)부터 시작합니다.
 - 예비자 봉헌해주세요.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5/14(목)
 -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성모성월 고리기도
 - 월,수,금,일: 19시30분
 - 화,목,토: 미사 후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출입 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 미사 전 출입자 명단 작성 필수 (주일만 본당은 바코드 명찰 이용함, 명찰 미소지 시 명단 수기 작성)
 - 미사 시 1-2m 거리두기(단, 가족은 함께 앉기 가능), 단체 음료와 음식 나눔 중지
 - 사도직 단체의 모임과 행사, 주일학교 미사와 교리는 초중고 등교일 까지 연기
 - 미사 참석자 작성 및 발열체크를 위해 미사 20분 전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석 의무 면제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노약자, 어린이, 발열자, 호흡기 이상자
 - 위에 해당되는 신자는 공소예절을 하거나, 방송미사, 묵주기도, 선행 등으로 대신

교무금 : 5월 2일(토) - 5월 7일(목)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최안례(아네스)	1-3	이남이(마리아)	2-5	박소표(요한)	1-12
김중호(안드레아)	1-12	주양원(요셉)	1-12	진금순(체칠리아)	1-12
이병관(요셉)	3-4	김재실(에바리스또)	2-4	권지완(체랄드)	5-6
김상문(아우구스티노)	1-4	김주홍(벨라도)	3-5	안순환(도미니코)	3-4
김가영(아나다시아)	2-3	김연순(마리아)	2-4	손광익(요셉)	3-4
최인석(다니엘)	1-5	박순연(마리아)	4	박두리(아네스)	4
김수조(테레사)	3-4	신성철(안토니오)	3-4	구상철(미카엘)	3-5
박정숙(카타리나)	5	김용만(사도요한)	12-4	정재복(아벤티노)	3
김정수(마리아)	3-4	김종금(글라라)	5	최호연(도마)	2-4
이삼순(올리아)	2-5	백만진(알로이시오)	5	이영철(베드로)	2-3
임문자(루치아)	3-5	서소금(세레나)	1-5	이원조(베로니카)	2-4
진일용(루치아)	3-4	문상순(모세)	3-4	조정순(마리아)	1-5
이몽삼(마태오)	3-4	전삼택(마르첼로)	3-4	조세태(시몬)	3-5
신강순(도미니코)	5	김관곤(오네시모)	3-5	송영성(베드로)	1-5
권정영(예로니모)	1-5	박동주(F.로마나)	2-4	김중섭(그레고리오)	2-3
전영석(디모테오)	5	이석규(알로이시오)	5	한승순(안젤라)	3-4
김세웅(대건안드레아)	2-3	손미정(수산나)	5	송아정(가브리엘라)	3
노미선(요셉피나)	2-5	신지연(마리스텔라)	5	지윤자(마틸다)	5
전정부(아우구스티노)	5	김민희(요안나 F.)	5	서성혜(발렌티나)	4
조양규(미카엘)	5	김춘자(요안나)	4	이재동(토마스)	4
김영자(프란치스카)	5	김봉선(안나)	5	박종술(안드레아)	4
최이균(베네딕토)	4	구자호(다미아노)	1-5	채경수(라파엘)	2-3
김선미(베로니카)	5	노정옥(카타리나)	3-4	이주은(베네딕타)	2-4
서경덕(요안나)	2-4	윤주국(알로이시오)	5	이상현(T.아퀴나스)	4
박준규(아우구스티노)	2-4	송계용(바오로)	5	정미화(M.막달레나)	5
왕명련(아네스)	5	김기정(에스텔)	5	이상국(요아킴)	5
김순임(아나스타시아)	2	안종분(글라라)	4	이희숙(말가리다)	3-5
교구사업모금 : 5월 2일(토) - 5월 7일(목)					
김중호(안드레아)	1-12	주양원(요셉)	1-2	김종금(글라라)	5
이삼순(올리아)	2-5	신강순(도미니코)	5	노미선(요셉피나)	2-5
최이균(베네딕토)	4	구자호(다미아노)	1-2	김선미(베로니카)	5
박준규(아우구스티노)	2-4	윤주국(알로이시오)	5	송계용(바오로)	5
이상국(요아킴)	5	이희숙(말가리다)	3-5		
■ 용원성당 성전건립 기금 박준규 아우구스티노(완) -기간: ~ 2020년 4월 30일 -분담금 57,700,000원(교무금 4개월분 납부) -불현 누계: 47,542,000원(199세대)			주일 미사 참석자수 : 255명 교무금 10,823,000원 주일헌금 4,598,000원 교구사업모금 652,000원 성소후원금 491,000원 용원성당 분담금 60,000원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입금시에는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유일하시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또한 왕국을 세우게 하셨으며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또한 외아들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인류구원의 사명을 이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어 들어 높이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말에 하나님이란 낱말이 없다는 것이 국어학자의 의견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돌님, 셋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단어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는 유일신 사상이 다 들어 있다.

마음의 평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일까.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 그는 커다란 야자나무 아래서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가 앉아 있는 해변 너머의 세계를 그는 본 적이 없고 따라서 말세에 대해 고민한 적도 없다. 음식과 물은 풍부하지 않았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고 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다. 이러한 일들은 매일 아침 그에게 하나의 도전이었으며 날이 저물 때면 그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파도의 증얼거림, 새들의 노랫소리와 멀리서 이따금 들려오는 천둥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다. 그에게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없었다. 최고의 화가가 그의 섬 주위에 매순간 만들어놓은 걸작품 외에는, 날마다 보는 일출과 일몰이 최고의 그림이었으며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그는 하늘과 별과 달을 관조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주인인 신과 대화했으며 자신이 살아 있는 것에 감사드렸다.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보험회사나 노후 연금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다. 유언을 남기거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만 마음의 평화를 지닌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은행에는 수백만의 인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국제적인 기업이나 경매회사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돈 받고 팔지는 않으니까.